시론 사대와 대결에 얼뜬 머리를 식혀야 한다

최근 남조선당국의 언행을 놓고 말한다면 논판의 허수아비, 혹은 밝은 빛을 보고 무작정 덤벼드는 부나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강요한다고 해서 그 무슨 《한미국방실무그룹》을 내오겠다고 설레발을 치는것도, 그 누구의 《위협》을 운운하며 동족을 겨냥한 《을지태극》연습을 벌리려고 작정한것만 보아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이는 상전에 대한 맹목적인 굴종이 초래한 비굴한 결탁이며 동족에 대한 상습적인 적대의식이 낳은 전쟁대결망동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수 없다.

공화국이 천명한 《주적은 전쟁》이라는 명구는 온 겨레와 세인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탄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새 세기 평화실현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명제로 자리잡고있다.

초보적인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우기 민족적자존심을 한쪼각이라도 간수하고있다면 이 땅, 우리 민족의 불행과 고통의 불씨였고 그 연장인 전쟁이라는 개념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전쟁화약내가 물씬 풍기는 《한미국방실무그룹》이라는 명칭만 보아도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미군과 남조선군의 무력배비와 군비증강, 그에 따르는 전략물자증대 등을 념두에 두고있다는것이 명백하다.

더우기 미국이 조선반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략적초점을 겨누고있는 시점에서 《한미국방실무그룹》의 조작은 남조선을 미국의 침략적마수에 더욱 얽매이게 하는 미련한짓이며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무모한 군사적대결망동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는것이다.

그것은 남조선인민들도 모자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침략적군사도박에 끌어들이려는 외세의 흉책에 말려들고 뛰여들만큼 남조선당국의 상습적인 적대적, 대결적태도가 제밥에 날아드는 가을철 풀메뚜기만큼 무분별해졌다는것을 보여줄뿐이다.

그 무슨 《위기상황》을 운운하며 강행하려고 하는 《을지태극》연습이라는것도 그러하다.

조선반도의 《위기》는 남조선에서 침략전쟁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남조선당국이 첨단무기의 구입과 개발에 광분할 때마다 더욱 증가되고있다는것이 세인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의 《위협》, 《도발》을 입에 담기 전에 외세와 함께 벌리는 침략전쟁연습,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퍼붓는 첨단무기의 구매와 개발의 목표가 과연 누구였던가를 돌이켜보아야 할것이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공화국의 주적과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주적》, 그 상대적차이만으로도 누가 민족자주적이고 누가 사대굴종적인가, 누가 통일과 평화를 원하고 누가 분렬과 전쟁대결을 추구하는가를 명명백백히 알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말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안정과 민족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사대와 대결에 열뜬 머리를 식히고 랭정하게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할것이다.

리성의 한계를 벗어난 사고관으로는 눈앞의 현실도, 명백한 진실도 바로보기 힘든 법이다.

정 필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

남조선언론 《통일뉴스》가 얼마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무소속 《국회》의원 20여명이 공동으로 《보안법》폐지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보도하였다.

이는 지난 5월 10일 《보안법》폐지를 위한 10만명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지 158일만이라고 한다.

법안발의에 앞서 대행진단은 《국회》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어느 한 《국회》의원은 21대 《국회》는 오늘 공식적으로 《보안법》폐지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면서 《보안법》폐지를 통해서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적폐악법, 반인권, 반민주적인 악법을 땅속으로 깊숙이 묻어서 다시는 해빛을 볼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였다.

다른 한 의원은 《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제대로 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보안법》폐지법안을 발의하는것에 그치지 않고 진짜 없어질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결의하였다.

《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보안법은 민주사회에서 함께 할수 없는 불구대천의 악법》이라면서 앞으로 《보안법》철폐를 위해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폐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보안법은 4년전 초불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일먼저 없앴어야 할 적폐악법이고 정치적반대자를 죽이는데 악용됐던 반민주악법이며 유엔인권위에서 수차례 폐지권고를 했던 반인권악법 그리고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동반자인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반평화, 반통일악법》이라고 성토하였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악법인 보안법폐지는 더이상 미룰수 없는 가장 시급한 시대적과제》라고 하면서 《73년간의 끔찍했던 보안법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자.》고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현실같은 영화, 영화같은 현실

요즘 남조선에서 TV극들이 사람들의 큰 관심사로 되고있다고 한다.

TV극 《D.P》는 남조선군대내부의 부조리를 폭로한 작품이다.

군대내에 만연된 폭력, 기합, 성추행 등에 반발하여 탈영한 사병들에 대한 추격전을 기본이야기로 하는 이 TV극이 인기를 끄는것은 군대내부의 실상을 그대로 폭로하였기때문이라고 한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군대에서 몇몇 피물이 사고를 치는게 아니라 군조직자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괴물이라고 력설한다. 군대가 사람을 잡는다는 이야기다.》라고 평하였다.

TV극 《D.P》가 군대내의 반인권상을 폭로한것이라면 TV극 《오징어게임》은 남조선을 비롯한 자본주의사회의 약육강식, 황금만능과 부익부, 빈익빈의 실상과 근원을 폭로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TV극 《오징어게임》은 빚에 쫓기는 사람들이 목숨을 건 경기에 참가하여 수백억원의 상금을 두고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이야기라고 한다.

어느 한 평론가는 《〈오징어게임〉이 참가자들이 머무르는 공간을 백화점의 상품진렬대처럼 구성함으로써 이들이 자본주의사회의 진렬대속 한갓 상품에 불과함을 드러내고 세계 최상위포식자들인 백인권력계급들은 다른 공간에서 게임을 관전(상품을 고르는)하는 공간연출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 TV극이 담고있는 핵심이 현대자본주의사회에 대한 풍자임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TV극 《D.P》의 제작자들은 작가, 연출가, 배우들에 이르기까지 군복무경력의 소유자들이고 《오징어게임》도 마찬가지여서 관객들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보는것같다고 소감을 터놓았다.

TV에서는 현실같은 영화가 방영되고있을 때 지금 남조선정국은 영화같은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대장동개발특혜의혹을 둘러싸고 《국회》에서는 민생이 사라진 《동물국회》가 재현되고 서로가 범죄자라고 물고뜯는 여야당사이의 치렬한 대립과 갈등으로 정국은 진흙탕싸움판이 되였다.

이를 반영하여 남조선방송 《KBS》는 출자금과 대비해 수익률은 11만 5 345%, 상금은 8 540억원인 대장동개발사업의 설계자는 누구이고 상금은 어디로 흘러갔는가를 《대장동게임》이라는 시사물로 방영하겠다고 한다.

변호사와 회계사, 전 대법관, 전 검사장, 《국회》의원까지 얽혀있는 대장동개발특혜의혹은 단순한 부패행위가 아니라 남조선사회에 만연된 황금만능, 약육강식, 정경유착의 축도라고 할수 있다.

대장동개발특혜의혹에 대해 서로가 서로를 두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라고 여야당이 고성을 지르고있지만 남조선인민들은 악성전염병과 생활난에 허덕이는 민생고는 아랑곳없이 권력야망과 리권만을 추구하며 목에 피대를 돋구는 정치권에 침을 뱉고있다.

강 철

여전히 성추행당

최근 남조선언론은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20대 청년단체대표가 청년정책협의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학생들을 성폭력하여 경찰이 수사를 하는중이라고 보도하였다.

문제는 그 청년대표라는자가 감행한 성범죄가 피해자들에게 술과 함께 수면제를 먹이고 한짓이며 범행당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그 무슨 위원장노릇을 하였다는 점이다.

더우기 그자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영입제안을 받았다, 자기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으로 청년들에게 《위압》을 주고 감행한 범죄여서 정계에서는 《권력형 성폭력사건》으로 비난하고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성추행당》으로서의 본성을 또다시 드러낸 추악한 망동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에는 《돼지발정제》와 《밤에만 쓰는것이 녀자의 용도》라는 발언으로 론난을 일으킨 홍준표를 비롯하여 과거 성추행전력, 천박한 녀성관을 가진 인물들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남조선민심이 《국민의힘》의 조상들에게 《성추행당》, 《성누리당》, 《색정당》이라는 오명을 붙인것이다.

악당은 악당끼리 좋아한다는 말처럼 그 청년대표라는자가 《국민의힘》의 물을 먹어 그렇게 된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그런 잠재적성범죄자를 선택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국민의힘》이 여전히 《성추행당》, 《성누리당》인것만은 분명하다.

오물통에 쉬파리가 모여들듯 온갖 패륜아, 패덕한들이 《국민의힘》에 쓸어드는것 역시 너무도 자연스러운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말말말

◇ 《전두환, 정치를 잘했다.》

지난 19일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의 《대선》예비후보 윤석열은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분들이 꽤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극악한 살인마, 군부독재자를 찬양하는 윤석열의 망언은 지금 남조선정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커다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

◇ 《리완용도 나라 팔아먹은것 빼면 잘했다는 거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의 망언에 대해 《나라를 팔아먹은 리완용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것과 다를바없다.》고 단죄하였다. 정의당도 《〈리완용도 나라 팔아먹은것 빼면 잘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며 《국민의힘》의 《석고대죄》를 주장하였다.

◇ 《악어의 눈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입문이후 하루도 빼먹지 않은 비정상적인 언행이 급기야 수피 전두환을 찬양하는데까지 이르렀다.》며 《〈국민의힘〉 대표가 5.18묘역을 찾아 무릎꿇고 사과한것도 정략술수였으며 윤석열이 광주에서 흘린 눈물도 〈악어의 눈물〉이였다는게 드러났다.》고 격분을 표시하였다.

◇ 《21세기형 전두환》

여당의 《대선》후보측은 윤석열을 향해 《21세기형 전두환이 〈국민의힘〉후보로 출마한것같다. 군복이 사라진 자리에 법복을 입은 전두환이 활개치는것이 아닌가 개탄스럽다.》고 꾸짖었다.

◇ 《박정희, 전두환을 계승한다고 말한 홍준표》

20일 《국민의힘》 《대선》경선 대구, 경북 TV토론회에서 윤석열이 《지난번 대선나와서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라며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비난하였다.

본사기자

《적기지공격능력》 보유와 일본의 운명

얼마전 일본수상이 야스구니진쟈에 공물을 보냈다고 한다.

특급전범자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구니진쟈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문제는 일본당국의 향후 정책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세계는 일본당국이 야스구니진쟈를 놓고 취하는 행동에 대해 늘 주목하고 경계하고있다.

그런데 새로 등장한 일본수상이 야스구니진쟈에 공물을 보냈다는것은 군국주의의 후예임을 자인한것이고 선임자들처럼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야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맹약을 보여준것이나 다름없다.

단적인 실례로 최근 일본에서 심상치 않게 울려나오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두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일본수상은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할 속심을 표현했다고 한다.

그는 이미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자국의 외교안보정책의 틀인 국가안보보장전략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늘어놓은바 있다.

일본의 극우인물들과 보수언론들도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비롯하여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대고있다.

그들이 운운하는 《적기지공격능력》이라는것은 탄도미싸일발사 등 《적국》의 공격징후가 나타날 때 일본이 선제타격으로 그를 제압할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세계여론은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발언이 《전투력보유금지 및 전수방위원칙》을 규정한 일본헌법에 전면배치되는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전패국인 일본은 교전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여있다.

일본이 헌법 제9조에 의해 최소한의 방위력만 가질수 있는 《전수방위》원칙이라는 《족쇄》를 차지 않으면 안되였던 리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일본은 이제는 명색뿐이던 《전수방위》원칙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선제공격전략을 공공연히 실행에 옮기려 하고있는것이다.

일본에서 선제공격에 대한 소리가 나온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일제패망후부터 지금까지 력대 일본집권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누구의 《위협》과 《적기지공격능력》보유에 대하여 떠들군 하였다.

그리고 《평화헌법》개정을 비롯하여 장애로 되는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버리기 위해 책동하면서 국방비의 계통적인 증가와 함께 공격형무장장비의 개발과 생산, 구입 등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다목적전투수행능력을 갖춘 호위함, 잠수함 등 각종 함선들을 건조하여 정식 취역시켰으며 최신스텔스성능을 갖춘 다음세대 전투기와 무인기, 항공기발사형장거리순항미싸일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금 일본《자위대》의 규모와 전투능력은 《자위》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집단적자위권》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에로 그 세력을 뻗치고있다.

사실상 일본의 선제공격능력보유는 이미전에 완료되였다고 해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일본에 있어서 《평화헌법》개정과 선제타격능력보유의 합법화는 곧 《전수방위》원칙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재침준비의 최종완성과 군국주의부활의 법적토대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일본이 재침야망과 군국주의부활망상에 들떠 《적기지공격능력》보유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지만 그것은 자기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결과를 재촉할뿐이다.

일본의 과거청산을 강력히 요구하는 아시아인민들을 비롯한 세계평화애호세력이 군국주의후예들의 재침야망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일본렬도를 위태롭게 하는것은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대동아공영권》망상에서 깨여나지 못한 일본정객들의 재침현훈증이며 그 결과 차례질것은 과거 일제의 수치스러운 종말을 답습하는것뿐이다.

그때에는 야스구니진쟈의 망령들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만필 《그놈이 그놈》

요즘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의 《대선》예비후보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 무슨 TV토론회라는것을 벌리고있습니다.

가관은 토론회때마다 저들사이에 별의별 희비극이 다 벌어지고 그것은 그대로 사람들의 눈살만 찌프리게 한다는겁니다.

실례로 윤석열에게는 무당의 주술에 매달리는 《미신후보》, 온 가족이 감옥에 가야 하는 《범죄공동체》라고 몰아주고 홍준표에게는 《버럭깡통》, 《머리와 입부터 세탁해야 할 불치병환자》라고 비난하고, 류승민은 《훈시질만 하는 교수》, 원희룡은 《윤석열 2중대》, 뭐 이런 식으로 몰아주고 비난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얼마전에 있은 토론회라는것을 한번 볼가요.

…

홍: 윤후보! 박근혜, 리명박에 대한 수사, 구속은 정치보복이 아닌가요?

윤: 에ㅡ 만일 우리가 지금 대장동개발특혜의혹문제를 가지고 여당후보를 개패듯 몰아주는것처럼 하면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들(박근혜, 리명박)이야 썩은 오이꼭지 떨어지듯 한것이나 같은데 내가 약간 손댔다고 정치보복이라 하면 참 억울하지요.

원: 정말 정치보복이 아닌가요?

윤: 제길, 그게 정치보복이면 박근혜에게서 《배신자》라는 욕을 먹었다고 해서, 자기 당권이 위태롭다고 해서 박근혜의 탄핵을 지지하고 당에서 내쫓은 홍후보나 류후보의 행태는 배신두, 정치보복두 아니란거요? 팬히 나보구만…

류: 저저저, 저게 어따대구. 그때는 배신이 아니라 견해상의 차이에 의한 오해였단 말이야.

윤: 그러게 털어 먼지 안 나오는 옷이 없는것처럼 말꼬투리 잡구 사람 꼴먹이지 말구 다른 이야기나 하자구요. 잰내비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류후보나 홍후보도 그렇게 실수할수 있는거지.

홍: 뭐야, 자기가 온통 실수덩어리인 주제에. 《쩍벌》, 《도리도리》, 《1일1망언》… 이게 뭐요. 실수도 한번이면 귀엽게 넘길수 있지만 반복되면 실력이 그게 다구나 하고 락인되는 법이요.

윤: 그거 여당패들이 하는 소리같수다레.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틀이 없구 소탈한 사람이구나.》 하구 생각한단 말이요. 그래서 내 지지률이 당신들보다 높은거구.

류: 지지률? 지랄같은 소리하네.

윤: 닥치시오.

홍: 너나 닥치시오. 요즘 높아가는 우리 지지률을 따라잡느라 꼬리에 불달린 망아지처럼 헐떡거리는 주제에.

원: 체통 지킵시다. 비렬한 인신공격은 말구요.

홍: 뭐, 비렬? 원후보는 섬에서 살다나니 정치감각이 무디여졌구만. 경쟁상대에 대해서는 네편이구 내편이구 가림없이 비렬한 인신공격정도가 아니라 애기때 먹은 젖물까지 다 토하게 해서 망신을 주구 떨어뜨리는것이 경선이야. 남을 딛고서야 내가 살수 있다 이거지.

원: 내가 모를가봐서요. 바람많고 돌이 많은 제주도에서 단련될대로 단련된 나요.

류: 웃기는군, 제주도의 바다바람이 정치권의 칼바람과 대비할수 있나? 제주도의 돌보다 많은 비난, 조소, 음해를 뭇매처럼 맞으며 얼굴이 두꺼워지고 신경이 고래힘줄같이 질기여진 우리들과 같을수 있는가?

윤: 정말 이러기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 경선을 보구 진흙탕싸움, 니전투구라고 욕하는게요, 오죽하면 내가 전번에 《당해체》소리까지 했겠소.

류: 뭐 해체? 그래 당에 들어온지 얼마나 됐길래 해체소릴 하는거요. 굴러온 돌이 배긴 돌 뺀다더니…

홍: 오만방자하기란, 20여년간 당을 지킨 내앞에서 해체를 운운해.

윤: 사람 웃기지 마오, 누굴 보구 굴러온 돌이요? 정치철새라는 말도 있듯이 몇번이나 당을 들락날락한 량반들이 《배긴 돌》소리 좋아하네. 그런걸 보구 나갔던 파리가 왱댕한다구 합디다.

원: 가는 방망이에 오는 홍두깨라구도 하지요.

홍: 이것들이 보자보자하니까.

류: 저것들한테는 조금도 양보해선 안되겠다.

홍: 그렇지 않구. 양보라는건 적수를 포용하면서 목졸라 죽일 기회를 얻자는건데 지금같은 때에 양보하면 거꾸로 내가 목조임당할수 있지.

윤: 나도 양보는 없수다.

…

자 보셨는가요.

딱 저만이 《깨끗한 후보》, 《능력있는 후보》이고 다른것들은 다 몹쓸 놈이라고 하니 정말 《다정한 승냥이형제》라 하겠습니다.

지금 남조선사회를 들썩하게 하는 대장동개발특혜의혹을 두고 여당후보에게 조직폭력배들과의 련관설까지 내흔들며 《감옥에 처넣겠다.》고 공갈하다 못해 제편끼리도 잡을내기를 하는것들이 이담에 인민들을 파리잡듯 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공정》과 《혁신》을 떠들어도 곧이듣질 않는것이고 그들의 후보들을 가리켜 《그 밥에 그 나물》, 《그놈이 그놈》이라고 하는겁니다.

본사기자 김정혁